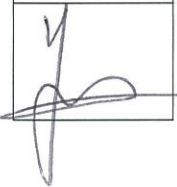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회

2020학년도 제4차 회의록

의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20. 10. 22(목) 14:00 ~ 15:55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 (9명) : 김해동, 채호석, 박연관, 윤이식, 윤호숙, 원종민, 김병철, 이범선, 유정은
- 불 참(1명) : 김수진
- 회의지원(1명) : 엄종섭
- 학 교(2명) : 조기석 기획처장, 정송조 기획팀장

4. 회의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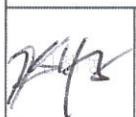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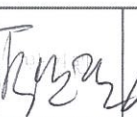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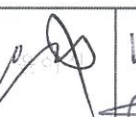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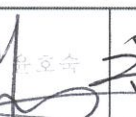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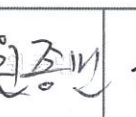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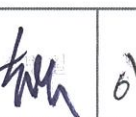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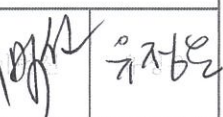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심의
- 기타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엄종섭 기획팀원이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윤호숙 의장이 2020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심의
 - 윤호숙 의장이 대학평의회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하여

대 학 평 의 원 회							
							

2020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알리며, 사회계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 윤호숙 의장이 「2019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안건이었던 ‘대학 구조 및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내용이 금번 학칙 개정(안)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당시 학부가 통합 혹은 폐지될 경우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유정은 의원이 학칙 개정(안) 관련 학생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 후, 학칙 개정(안)에 대한 경영회계학과 대표의 요청 사항(학우들이 메일로 보낸 내용에 대한 답장 요청, 학과 게시판에 통·폐합 과정 공개 요청, 대학에서 제안한 공청회 등 대화의 자리는 통·폐합 과정 공개 이후 진행하겠다는 의견, 회계 전공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설명하며 참조해주시길 부탁함. 이에 대하여 총학생회는 학과 대표단이 먼저 대학 운영진과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진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총학생회에 요청을 하면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의결하여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함.
- 유정은 의원이 지난 5월에 진행된 2020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중 ‘회의 오기 전에 학생들 의견 수렴을 했음. 개인의 의견이 아닌 공식적인 학생들의 의견을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임.’ 이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일부 학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정을 요청해왔음을 설명함. 이에 전임 총학생회장,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 등의 의견 수렴을 근거로 발언했던 것임을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함.
- 김해동 의원이 학칙 개정(안) 심의에 있어 학과 개편 과정에서 학과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학과 개편 이후 학칙이나 규정에 학생, 교원의 소속 관련 내용이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함을 언급함.
- 채호석 의원이 경영회계학과와 마케팅·광고학과를 통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 마케팅·경영학과 학과 명칭만 놓고 보면 자칫 학과 운영 중심의 축이 마케팅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윤호숙 의장이 학칙 개정(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학칙 개정(안) 담당 부서장 및 실무팀장 배석을 요청하였으니 직접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절차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학우들에게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며, 기획팀에서는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학제개편(안)은 지난 6월부터 약 2달간 학제개편 TF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경영회계학과, 지방 행정·의회 학과, 마케팅·경영학과, 산업 안전학과 등 사회계열 학과 발전방안 모색이 주된 내용이었음을 설명함. 추가로 학제개편 TF 운영 과정에서 사회계열 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설명함.
(김해동 의원이 2시 52분 퇴장함.)
- 박연관 의원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가 신설된다면 현재 한국어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등 다문화사회 관련 사항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로 이관되는 것인지 질의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학제개편 TF에서는 한국어학부 다문화 관련 과정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음을 설명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학과 게시판에 통·폐합 과정 공개 요청 관련 내용은 처장님과 총장님께 보고 이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함. 추가로 기획팀에서는 경영회계학과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준비하였고 교육부 통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함.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답변함.
- 원종민 의원이 만약 학제개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학 내부에서 먼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고 학제개편 과정이나 대화 과정에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외부의 다른 통로를 찾는 것이 낫잖을지는 모르나 그 진위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로 그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함.
- 채호석 의원이 학제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이 사전에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언급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외국어계열 편중화현상 심화 및 사회계열 입시의 하향추세 장기화에 따른 사회계열 강화 전략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반대학 온라인 수업 기준 대폭 완화에 따른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등 학제개편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함.

- 윤이식 의원이 학제개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언급함.
- 박연관 의원이 다문화·심리상담학과는 다문화와 심리상담이 분리되어 2개의 트랙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다문화심리상담이 하나의 큰 영역으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조기석 기획처장이 2개의 트랙으로 운영되며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음을 안내함.
- 정송조 기획팀장이 대학 본부는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커리큘럼 운영, 학위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함.
- 윤호숙 의장이 향후 진행되는 대학평의원회 회의부터는 사전에 안내되는 회의 안건에 대한 각 구성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와주시기를 요청함.
- 의원들이 숙의한 후 제출된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함.

2) 차기 회의 일정 및 안건

- 2020학년도 제5차 회의는 11월 6일(금) 오후 2시에 진행하고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기타사항을 안건으로 하기로 함.

7. 폐회선언

- 윤호숙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3시 55분) 끝.

2020년 10월 22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윤 호 숙

(인)

평 의 원 김 해 동

(인)

평 의 원 채 호 석

(인)

평 의 원 박 연 관

(인)

평 의 원 윤 이 식

(인)

평 의 원 원 중 민

(인)

평 의 원 김 병 철

(인)

평 의 원 이 범 선

(인)

평 의 원 유 정 은

(인)